



03 ISSUE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안경업계에도 이에 따른 갖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08 EVENT

제2회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지원책 연구 및 제5회 산학연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7월초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됐다.

10 CONVENTION

경북도와 경산시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패션테크융복합특화단지에 안경계 등 27개 기업이 가계약했다.



실내에서

흐린 날

실외에서

전세계 변색렌즈 브랜드 1위, 트랜지션스
변색렌즈 스타일 컬러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트랜지션스 기본 컬러



NEW

트랜지션스 스타일 컬러



변색 렌즈의 혁신 - 업계 최다 컬러
7월 말 트랜지션스 스타일 컬러를 만나보세요.

스타일 컬러 적용 제품:
NL 뷰핏, NL3 SP, NL SP



전국 안경·콘택트 전문체인
(주) 안경매니저

201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015~17 우수프랜차이즈 3년 연속 선정!

(주)안경매니저 가맹점 모집

OPTICAL MANAGER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원부 상권 별도 책정
아이피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당 및
상권분석

총	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장	010-9424-5438	
전남 · 전북	문기영	팀장	010-7557-8208	
대전 · 경상도	노창호	팀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



안경매니저



씨채널안경



나도코리아
안경사 구인구직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ASAHI 1.67 / 1.74 양면바꾸면 UV 퍼펙트 출세!

ASAHI-LITE
JAPAN

안경렌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대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아이미광학 T.02.774.4477 F.02.753.9262

최저임금 인상... 안경업계엔 설상가상

안경업체들 불경기·과열경쟁·객단가 하락 속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안경원엔 ‘경영 부담’, 영세 안경제조업체엔 ‘직격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안경업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4일 새벽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에 사용자측과 근로자 쪽이 모두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인건비 상승의 원가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해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안경원에는 ‘경영 부담’을 주고, 영세 안경제조업체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규직은 감소, 알바 안경사는 증가 예상

안경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가뜰이나 신규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영세 안경제조 유통업체는 물론 일선 안경원에 적잖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신입 안경사라도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1시간으로 계산하면 급여와 식대 20만원, 퇴직적립금 10%, 명절 상여금, 4대보험을 더하면 매월 30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안경원 입장에서는 나홀로 운영하든지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는 “더구나



▲ 2019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로 인한 안경업계 등 사회적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신입 안경사의 급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사진은 모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봉사활동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콘택트렌즈 가격붕괴 등 원가판매가 일상화되어 안경원 수익률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많은 안경원이 폐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시의 모 원장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도시보다 지방에 소재한 안경원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원장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면에서 정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좋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정직원보다는 알바 안경사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종사 안경사들도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다. 서울 중구에 근무하는 1년차 안경사인 K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2년차 안경사가 아닌 차라리 임금이 비슷한 3년차 이상을 구하는 곳이 많아져 신입 안경사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미 온라인의 구인사이트에 신입 안경사는 거절하고 2~3년차의 경력 안경사와 알바만 찾는 안경원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안경류의 제조 및 판매단가 인상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대구의 영세 안경제조업체는 큰 시름에 빠졌다. 가뜰이나 제조 인프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동안 서너 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제조 공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30여 년간 소규모 공장을 운영해온 L 대표는 “공장 주변의 이주민들을 투입해 조립이나 포장 등 단순공정을 맡겼었

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과연 공장 가동이 가능할지 걱정이 크다”며 “분명한 사실은 내년부터 안경 조제단가를 인상하던지 생산을 중단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다”고 불멘소리를 했다. 안경업계의 경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선 안경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영세 제조업체에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대다수 로드숍 안경원은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그 해결책은 안경원 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중앙회 정기이사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안경원 대응책에 대해 집중 거론해 타개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대광고 안경원 제재 ▶알바안경사 적정금액 권고 ▶조제가공료 현실화 등을 거론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안경업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임금 인상이 안경의 객단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안경업계를 더욱 어렵게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노동자나 사용자 어느 쪽이 이익을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책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290만~50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포토뉴스

풍각쟁이 된 어느 안경원의 용달차 오픈 광고

오래전 장마당에서 손과 발로 장구를 치며 물건을 판매하던 풍각쟁이 같은 안경원의 용달차 광고판이 또다시 등장했다. 안경사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용달차 광고판은 소비자들에게 안경가격의 불신임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안경원의 정세가 판매를 초토화시키는 불량 광고다. 더구나 오픈 세일이라며 ‘안경테 공짜’라는 과장광고 문구도 문제이지만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80% 세일’ ‘누진다초점렌즈 50%’ 등의 광고를 쳐다본 소비자들은 과연 안경가격이 얼마나 마진이 좋으면 공짜로 준다고 광고할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가격을 파괴하는 과장광고는 업계 전체에 망가뜨리는 행위로서 업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식 있는 안경사라면 지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대광고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고 저지르는 과대광고. 결국 안경계 모두를 죽이는 일이다.



특독

■ “U안경제인을 능가하는 새 체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제 안경원이 막가파에 서로 죽이는 치킨게임이 일상이 됐군요.”
(경기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

■ “심각한 불황으로 2~3년 내에 안경원이 30% 정도는 폐업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요즘 매출을 보면 안경원이 구조조정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안경사)

‘미세먼지로 C/L관리용품 생산 증가’

식약처, 미세먼지 심한 지난해 콘택트 관리용품 생산량 127% 증가 발표

미세먼지 영향으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나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일 공개한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 1.4조원으로 24.5% 감소’란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의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1조 4703억원으로 전년(1조 9465억원) 대비 24.5% 감소했는데, 이 같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의약품 분야에서 약 20%를 차지해온 염모제, 탈모방지제, 육용제, 제모제 등 4종의 제품군이 화장품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보

건용 마스크와 같은 미세먼지 관련 용품의 생산실적이 증가했는데, 렌즈세척액 등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125억원으로 전년(55억원) 대비 127%로 크게 증가했고, 보건용 마스크 관련 생산실적은 381억원으로 전년(187억) 대비 103% 늘어났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품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개인위생과 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정용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의 지난해 생산실적도 각각 933억원, 35억원으로 증가했다.

순위	품목	'16년		'17년		증감율
		생산금액	점유율	생산금액	점유율	
	합계	19,465	100	14,703	100	-24.5
1	치약제	5,727	29.4	4,957	33.7	-13.4
2	내복용제제	2,977	15.3	2,963	20.2	-0.5
3	생리대	2,979	15.3	2,608	17.7	-12.5
4	붕대, 반창고 등 위생용품	1,156	5.9	1,255	8.5	-8.6
5	가정용 살충제	874	4.5	933	6.3	-6.8
6	구충청량제	597	3.1	510	3.5	-14.6
7	마스크	187	1.0	381	2.6	103.7
8	방역용제제(살충제, 살서제)	245	1.3	240	1.6	-2.0
9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 소독제	200	1.0	236	1.6	-18.0
10	연고제, 카타폴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177	0.9	193	1.3	-9.0
11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55	0.3	125	0.9	127.3
12	기타 유사물품 등	124	0.6	116	0.8	-6.5
13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치아미백, 의치 세척, 소독용제제 등)	35	0.2	85	0.6	142.9
14	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	31	0.2	35	0.2	-12.9
15	금연보조제	6	0.03	29	0.2	383.3
16	땀띠, 짓무름 용제	6	0.03	22	0.1	266.7
17	구강청결용 물휴지	11	0.1	10	0.1	-9.1
18	액취방지제	2	0.01	3	0.02	50.0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7년 의약품 생산실적 관련 자료

스마트콘택트 의료기기 추가 지정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규정 추가한 일부개정고시안 발표



▲ 구글과 노바티스가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혈당측정용 스마트 콘택트렌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달 28일 진단용 소프트웨어는 추가하고, 일부 품목은 세분화한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과 관련한 빅데이터, 정밀의료, IoT 등의 기술이 접목된 신개발의 의료기기 개발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체계가 바뀐 때문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의료기기 품목으로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가 추가됐고, 질환예후와 예측검사소프트웨어 등 총 4가지 품목이

신설됐다. 특히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체내 포도당, 케톤의 농도, 또는 인압 등을 측정해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전송해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품목도 신설돼 이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향후 신고 절차 등에서 이번 개정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문의 1577-1255

선글라스 색상 짙으면 백내장 유발

렌즈 색상 짙으면 동공 확장돼 오히려 자외선 유입 증가 주장



대다수 국민들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최근 한 광학 전문가가 선글라스의 렌즈 컬러가 너무 짙으면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수도권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선글라스 렌즈의 컬러가 짙으면 동공이 확장돼 자외선 유입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양질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렌즈 컬러는 착용자의 눈동자가 보이는 다소 옅은 틸트렌즈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백내장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병으로 눈의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고 하얗게 혼탁이 생기는 질병이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42.3%,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90%가 백내장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백내장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 요인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사람이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적이지만 렌즈의 컬러는 너무 짙은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트레스’도 시력 악화의 주범

獨 마그데부르크대 연구팀, 의학 기록 분석 결과 스트레스와 안구질환 연관성 확인



그동안 시력 저하의 원인으로 알려진 디지털기기의 사용과 유해광선 이외에 이전 또 한 가지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 마그데부르크 의과대학 연구팀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팀은 스트레스와 안구질환을 다룬 기존의 연구결과와 의학적 기록을 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쉽게 안구질환에 노출되거나 혈압 상승으로 인한 혈관 손상 등을 유

발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종종 자신의 시력이 다시는 예전처럼 되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한다”며 “나빠진 시력은 인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동시에 안구의 혈류량을 높여주는 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는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트레스와 시력 저하의 연관관계를 추적한 이번 연구는 의학학술지 「EMPA 저널」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OPTOS
GERMANY TECHNOLOGY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완전 맞춤형
프리폼 양면 비구면 렌즈



- 독일 GF공법으로 넓고 편안한 시야 확보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전,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Technical joint with GERMANY

OPTOS LENS

국산 대표렌즈 닥터소모, 최상위 누진렌즈 출시

최상급 양면복합디자인 적용한 '앱솔루트 에이 라이프' 시리즈 개발... 안경시장서 기대감 높아져



▲ Absolute-a Life Balance, Absolute-a Life Dynamoc, Absolute-a Life Static의 누진렌즈 시야비교.

(주)소모비전(대표 신승중)의 프리미엄 국산 안경렌즈 Dr.SOMO에서 최상위 버전의 누진렌즈 Absolute-a를 업그레이드한 Absolute-aLife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신제품은 누진렌즈의 최상위 버전인 양면복합디자인(MSV)의 앱솔루트 에이 제품에 라이프 스타일 기능을 추가해 Balance, Dynamic, Static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개인맞춤형누진렌즈를 뛰어넘는 최적화된 누진렌즈이다.

Absolute-a Life 시리즈는 실내외의 균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밸런스 및 시선의 측면 이동이 자유로운 원거리에 특화된 디자인의 다이내믹, 편안한 근거리 시야를 확보하는 근거리 특화 디자인 스태틱 등 닥터소모만의 양면복합디자인과 결합된 최적의 렌즈 디자인으로 설계

되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앱솔루트 에이 라이프 시리즈는 누진대를 1mm 단위(8~14mm)로 설정할 수 있고, 가입도(+0.50D~+3.50D)와 인셋(0~4mm) 지정도 사용자의 개인변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특히 앱솔루트 에이 스태틱은 닥터소모의 자체적인 래럴비전 옵티마이징 테크놀로지(Lateral Vision Optimization Technology)를 적용해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왜곡현상을 현

저하게 줄여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근거리 시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수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과 고품질의 렌즈로 꾸준히 성장해 온 닥터소모는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렌즈를 생산하는 최첨단 프리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이번 신제품을 출시를 계기로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2018년 하반기 국내 안경시장에서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02)6932-7777

가디안상사, ‘드라이브 렌즈’ 전격 런칭

차량 불빛 차단하는 운전전용 렌즈 8월 긴급 출시... 안경매니저 등과 제휴로 전국에 공급

가디안상사(대표 김경환)가(주)안경매니저(대표 김재목)와 태성광학(대표 최원기)과 손잡고 새로운 ‘야간 운전용 드라이브 렌즈’를 오는 8월에 출시한다. 신소재 모노미를 사용한 가디안드라이브 전용렌즈는 그동안 문제점었던 착색의 불규칙을 개선하고, 블루라이트로 인한 차량 불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신기술이 도입된 고기능 렌즈다.

가디안의 36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태성광학의 새로운 착색방식이 결합되어 개발된 이번 드라이브 전용렌즈는 40여 가맹점이 가입한 안경매니저의 마케팅과 자본투자자로 전국 특약 안경원에서 ‘소비자가 먼저 찾는 렌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디안상사의 김경환 대표는 “드라이브



전용렌즈는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렌즈 공급과 철저한 A/S, 품질보증카드와 정품인 증 마킹,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약점 홍보로 생산자와 대리점, 특약 안경원에 모두 만족을 줄 것”이라며 “또한 불빛 차단 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라이트 불빛차단 pop’를 특약 안경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318-0251~2

콘택트렌즈체인 ‘렌즈아이’ 함수율 높은 컬러렌즈 런칭



콘택트렌즈 전문체인 렌즈아이에서 오는 7월 3째 주 초반 ‘CLEAVE DOUBLE DAY Brown’을 출시한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새로운 클리브 더블데이 브라운 렌즈는 함수율 55%, 그래픽 직경 14.2에 1팩 10알 구성으로 그동안 원데이 렌즈에 부담을 느끼던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을 전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렌즈아이의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의 클리브 더블데이 브라운은 팩렌즈 가격붕괴에 신음하는 많은 안경원들이 믿고 판매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클리브 더블데이 그레이는 8월 말경 출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문의 02)477-0873



특수 재질과 기술 품은 ‘바슈롬’ 소비자들에 인기

콘택트 사용 늘어나는 여름철에 바이오트루 원데이·바슈롬 울트라 판매 상승

(주)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의 주력 제품인 Bio true ONE day와 BAUSCH+LOMB ULTRA가 이번 여름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바슈롬에서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히트 제품의 하나인 바이오 트루 원데이는 특허 받은 재질인 하이퍼젤을 채택, 각막과 동일한 78%의 수분을 함유한 건조방지 SA성분이 재질과 결합하여 16시간 동안 편안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렌즈다.

또한 한 달용 바슈롬 울트라는 바슈롬만의 모이스처질 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을 채택해 높은 산소 투과성과 낮은 모듈러스를 보유해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선글라스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은 콘택트렌즈의 사용율도 상대적으로 많은 계절로서 최근 바슈롬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70-7167-9922

에실로코리아

3종 출시한 ‘스타일 컬러’ 기존 4컬러와 완벽 구성



(주)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에서 지난 3일 변색렌즈 브랜드 Transitions의 신제품 ‘Style Color’를 출시했다. 이에 따라 사파이어, 퍼플, 에메랄드, 앰버 등 기존 4가지 컬러이던 트랜지션스 스타일 컬러는 새로운 컬러를 포함해 총 7가지 컬러를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컬러는 유행과 컬러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색상으로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컬러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청량감을 주는 블루, 그린 계열을 선호하는 트렌디한 소비층의 선호가 전망된다. 또한 퍼플 컬러는 전 세계 컬러 트렌드를 선도하는 색채연구소인 팬톤(PANTONE)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인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 트렌드를 반영해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3종 컬러는 실외에서는 자외선 강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색돼 선글라스로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투명한 일반안경으로 사용하는 변색렌즈의 기본 기능에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컬러 옵션을 더해 패션 아이템으로 제공된다.

에실로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변색렌즈의 주요 구매층은 중장년층이었지만 이제는 트랜지션스 스타일 컬러의 출시로 20~30대 젊은 층이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변색렌즈 소비층이 젊은 층까지 확대되면 변색렌즈 시장의 성장세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문의 1600-8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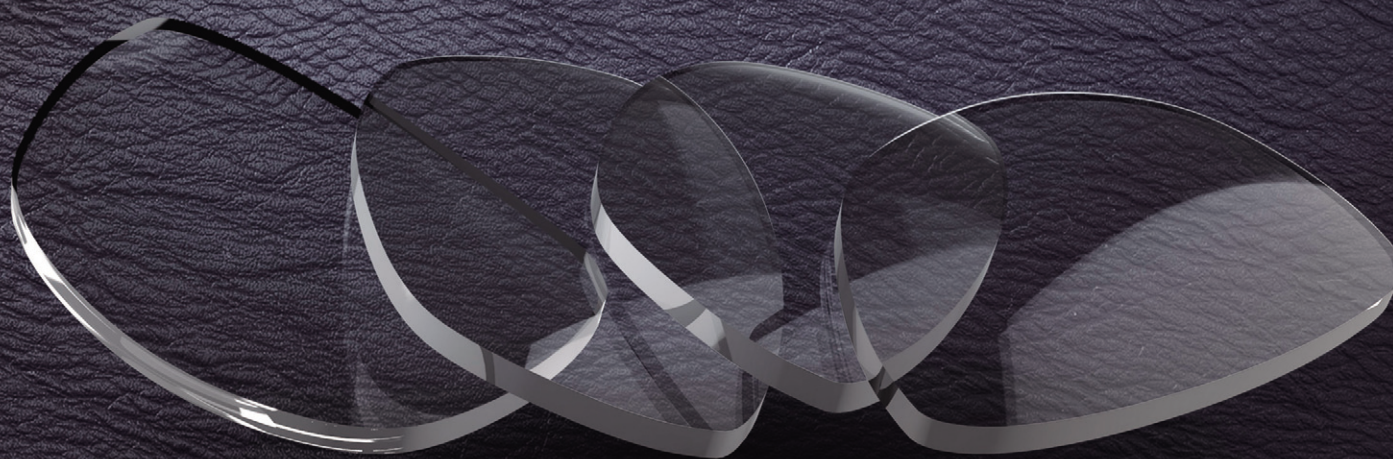
www.chemilens.co.kr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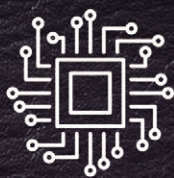
카카오톡에서 케미렌즈 친구 추가하고 이벤트와 제품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가성비 좋은 케미렌즈 누진렌즈 시작은 매직폼 애니원

같은 누진다초점렌즈라도 케미렌즈 매직폼 애니원은 다릅니다.
편안하고 짧은 적응기간으로 진정한 프리미엄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SOFT DESIGN



EASIER ADAPTATION



GREATER COMFORT

CHEMI
care for your eyes, care for your life

제2회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지원책 연구

제5회 산학연 발전을 위한 상생융합워크숍

머리 맞댄 산학연... 안경계 발전에 한목소리

일본 오사카서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 지원책 연구 및 산학연 상생융합 워크숍 개최

‘제2회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지원책 연구 및 제5회 산학연 발전을 위한 상생융합 워크숍’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안경사협회의 주요 관계자 31명, 전국 안경광학과 교수 45명, 업계 대표와 실무진 38명 등 총 114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안경업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폐막되었다.



노안시장의 확대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워크숍의 1부는 대안협의 중점 과제인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지원책에 대한 연구’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대안협의 진용갑 윤리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관 산업인 보청기 분야에도 국가 지원의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65세 이상 근용안경의 지원책은 안경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업임을 역설했다. 그는 주제발표 말미에 “협회는 물론 학계와 업계가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 김재민 교육원장의 진행으로 노안시장의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토의가 그룹별로 진행되었다. 대안협의 그룹, 학계 그룹, 업계 그룹, 그리고 안경사 그룹으로 나뉘어 실행 가능한 안건들을 선정·발표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제시된 주요 안건은 ▶돌보기가 아닌 근용안경으로 용어 정리 ▶더욱 전문화된 처방의 필요성 ▶노안과 노인관련 실무교재 개발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이었다.

이어 1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진 대안협의 김종석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은 똑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져야 업계 전체가 발전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워크숍은 우리의 먹거리를 확대하기 위한 근용안경 국가지원책 연구에 대해 한 발자국 다가서는 계기로써 협회는 앞으로 발전적 행사의 주체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경업계의 공동체로서 단합도 강조

이후 속개된 제5회 산학연 발전을 위한 상생융합 워크숍에서는 ‘예비 안경사와 현업



안경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산학연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가 진행됐다.

먼저 대경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승은 학과장은 이론실습 교육 공간인 EXPup station 구축과 운영 및 졸업 즉시 실무가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대경대 안광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김규승, 김경진 씨는 학생 입장에서 ‘안경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안경업계에 객관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어 인상적인 시간이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이후 대안협의 교육부회장이자 동신대 안광과 학과장인 전인철 교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소개와 특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

주제	발표자	
65세 이상 근용 안경 국가 지원책 연구	진용갑 윤리부회장	
질의 응답 및 토론		
누진시장 1조원 개척 포럼 • 숨은 노안시장의 1조를 찾자 • 노안시장 1조 개척을 위한 마케팅 제안 • 근용 안경 국가 지원(보험) 사례 호주	한국안경산업발전포럼	
질의 응답 및 토론		
상생융합 워크숍 진행 경과 공유		김용길 원장
안경사 권익향상을 위한 상생융합 워크숍		박승은 학과장
대경대 EXPUP Station 사회맞춤형 진행 사례		
동신대 사회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실습공간 구축	전인철 학과장	
아이지킴이 프로그램 시연	김영재 팀장	
자유토론		

▲ 제2회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지원책 연구 및 제5회 산학연 발전을 위한 상생융합워크숍의 토론별 주제와 발표자

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소개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시기능 검사와 분석, 훈련까지 가능한 안경사 양성을 위한 인원 선발과 운영, 최신 미래형 실습 공간 구축을 통한 환경구성, 산업체와 연계한 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에 대한 발표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10년 뒤 안경업계를 이끌어갈 예비 안경사에 대한 대안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계, 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예비 안경사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해 안경산업의 뿌리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한 안광과 교수는 “업계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처럼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고 그 실행방법을 찾는 것에서 이번 워크숍은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 안경업계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모임이 더욱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음번 워크

‘안경업계 소통의 주요 계기 마련해’ 대경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승은 학과장



우리 안경업계에 안경사협회와 전국 안경광학과 교수들의 소통의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안협의 학계 간의 다양

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 기쁘다. 안경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워크숍이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닌 안경산업과 관련된 국가 지원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안경사 인재양성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과별 신설로 협의와 결론을 도출하고, 실행방법 제시 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이뤄져야’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전인철 학과장



이번에 실시된 워크숍은 업계와 학계 그리고 대한안경사협회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노안에 대한 국가지원과 누진렌즈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에 거론된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후 상생워크숍에서는 진행상황 및 추가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워크숍은 토의시간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밸런스, 다이내믹,
스태틱 총 3가지
디자인 제공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시야를 제공하는 닥터소모 누진렌즈

앱솔루트 에이 라이프 시리즈

Absolute-a Life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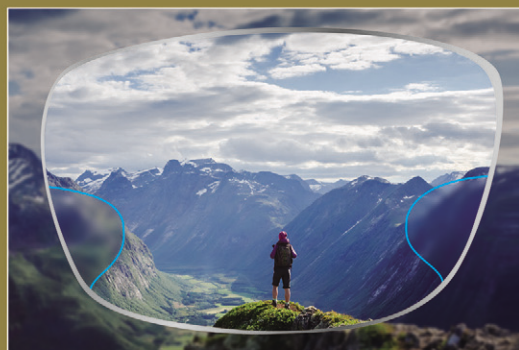
앱솔루트 에이 라이프 밸런스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최상급 렌즈

Absolute-a Life Dynamic

앱솔루트 에이 라이프 다이내믹



실외활동이 많은 라이프 스타일 최적화

Absolute-a Life Static

앱솔루트 에이 라이프 스태틱



실내활동이 많은 라이프 스타일 최적화

경산산업지구에 안경기업 다수 참가

경북·경산시가 조성하는 특화단지에 패션테크 기업투자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CMA글로벌 등 27개사 참여

경산에 안경·섬유산업 단지 조성 융복합단지에 1,500여 일자리 창출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224,668㎡(약 67,962평) 크기로 조성하는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에 씨엠에이글로벌, 다비치안경제인 등 27개 기업에 2천 억원 이상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패션테크 기업투자 및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경산시 최영조 시장·대구가톨릭대학교 김정우 총장·패션테크산업기업협의회 민병대 회장·경산지식산업개발 윤정남 대표 등 산학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북도와 경산시는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에 2천 241억원을 투자해 1천 5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화단지 개발 및 입주지원 등 MOU

패션테크 융복합산업은 기존의 패션디자인 산업인 안경, 주얼리, 이·미용기기, 섬유 등의 산업과 타이타늄 소재술, ICT기술의 융복합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토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주도하는 성장산업이다.

하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기업의 영세성, 핵심기술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북도는 패션테크 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 지난 12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패션테크 기업투자 및 산업육성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 업무협약체결을 마친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정우 총장·경상북도 이철우 지사·패션테크산업기업협의회 민병대 회장·경산시 최영조 시장·경산지식산업개발 윤정남 대표(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가 선글라스를 쓰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해 이번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기업 유치에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와 경산시·대구가톨릭대·패션테크산업기업협의회가 참여해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 내 기업투자 특화단지 개발 및 입주지원 ▶패션테크 융복합 산업 국책과제 발굴 추진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및 기업 애로 기술 해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경북도, 참여기업에 전폭적 지원 약속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에 우선적으로 27개의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방침인데, 이를 통해 안경업계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패션테크산업기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낮은 가격의 공장부지와 편리한 교통, 특히 기능성 타이타늄 공급이 가능한 패션테크 융복합센터의 조성이 확립돼 있고, 대구가톨릭대 안경광학과가 소재하고 있어 기업들의 인력공급과 기술개발이 용이한 경산시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이철우 지사는 “경산지식산업지구 패션테크 관련 기업 유치로 도민들의 최고 바람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유망기업이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R&D에서 생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경북도와 경산시는 패션테크 융복합 센터 조성에 따른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인력 양성사업 등 추가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8816-3687

인터로조, '장애인 역도단' 창단

전국체전 3관왕 출신의 김유협 선수 등 구성... 역도팀 운영과 대회 참가 전폭 지원

(주)인터로조(대표 노시철)의 '클라렌 장애인 역도단 창단식'이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의 인터로조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경업계 최초로 체육 선수단을 창단한 인터로조의 노시철 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사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이번 클라렌 장애인 역도단 창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자사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이용진 회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실력이 뛰어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실을 맺게 해준 인터로조와 노시철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창단한 클라렌 역도팀은 권태윤

감독과 김유협(시각장애인 1급), 박한별(시각장애인 3급) 선수 등으로 전국체육대회 3관왕 출신인 김유협 선수는 “회사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인터로조는 이번 창단한 역도팀의 운영과 대회 참가 등 향후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02)709-6677



▲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의 (주)인터로조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클라렌 장애인 역도단 창단식'.



▲ '클라렌 장애인 역도단'의 권태윤 감독과 김유협, 박한별 선수(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창단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주)인터로조 노시철 대표(우측).



NEW 안전 운전의 시작 가디안 렌즈! Guardian

지난 36년간 가디안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안경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안경사&안경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가디안은 2018년 8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과도한
 가격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안경사 및 안경원의 정당한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디안 취급 특약 안경원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가디안 특약점 외에 안경원은 2018년 8월 30일까지만
 주문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약 안경원 신청문의

가디안 렌즈

서울 | 늘푸른광학 1544-8668
 영신광학 02-853-8427
 월드포커스 02-771-4282
 일도광학(강북일도) 02-975-2275
 일도옵티칼 02-448-7117

대전 | 천안대명 041-558-2202
충남 | 청주 한양광학 043-257-7536
충북 | 청주대명 043-264-7887
 한국렌즈 042-256-6256

경기 | (주)한샘엔컴퍼니 031-212-0372
강원 | 경기대명 031-391-5980
 경기일도 031-841-1416
 대명옵티스(강원대리점) 033-735-1520
 인천대명 032-438-6800
 일산대명 031-907-4265
 중부대명 031-283-1636

전남 | (주)광주케미렌즈 062-224-9339
전북 | 광주대명 062-653-8998
 전주 케미아이텍 063-251-6303
 전주한국 063-236-0208

경남 | 대구대명 053-354-7779
경북 | 동경옵티칼 051-894-3737
 동협상사 051-412-2765
 시원광학 051-758-2332
 울산동협 052-260-4593

제주 | 제주대리점 064-752-2648

가디안 안경/선글라스

서울 · 경기 공통

YK 옵티кс 사무실
 02-463-3314

경북 · 충북 | 김 성 찬 010-9163-9090
전남 · 전북 | 김 민 수 010-3602-6937
충청남도 | 김 진 학 010-6258-7707
세인점 | 김 승 현 010-4455-5229
경상남도 | 이 상 환 010-8638-6401

◦ 의료기기 상표등록 제 0118435호

Guardian

Company & Goods

유통위클리 2018년 7월 15일 통권(204호) → TOP BRAND / PROSPECT / SUCCESS ITEM

TOP BR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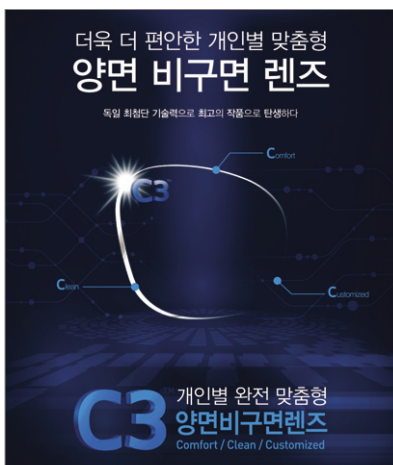
누진렌즈 개척한 ‘한미’… 걸작품 ‘C3 갤럭시’

개인별 맞춤형 누진렌즈 최고 기술의 생산업체로 명성… 국내외 안경시장서 C3 시리즈 인기

HS 한미스위스광학(주)
LENS www.hslens.com



한미스위스광학(주)이 선보이고 있는 C3 시리즈의 다양한 솔루션 광고 이미지.



국내 대표적 안경렌즈 제조기업인 한미스위스광학(주)대표 진재홍은 1991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기술과 혁신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기업이다. 2013년 베트남에 해외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변색 비구면렌즈 등을 선보이고 있는 한미스위스는 대표 브랜드인 C3 개인별 맞춤형렌즈의 세분화에 착수,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디자인의 맞춤형 프리폼 누진다초점렌즈를 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안경시장에서는 한미스위스의 다양한 솔루션은 ‘역시 믿음의 한미스위스’란 호평을 받고 있다.

문의 042)272-8972

▶ C3 GALAXY 5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디지털 시 생활에 맞는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중간부, 근용부의 시 생활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간부와 근용부의 영역이 기존 제품보다 넓게 설계되어 중간근용부를 많이 사용하는 착용자나 가입도가 많아서 중간부가 좁아지는 현상을 겪는 사용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출시 이후 중간부와 근용부의 시 생활을 보다 넓고 편안해 주는 기능성 개인 맞춤형 누진렌즈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 C3 GALAXY 4K

누진다초점렌즈 착용이 어려웠던 소비자층을 겨냥한 싱글 버전 같은 누진다초점렌즈로 유명한 갤럭시 4K는 특히 저도수 착용자나 난시가 센 착용자, 사축/사난시 같은 도수에서 더욱 유익한 제품이다.

원근용부의 배열이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진 아이템으로 타사 제품과 매칭력이 매우 좋아서 타사 제품을 사용하다 갤럭시 4K로 바꿨을 때도 부적응률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자체 임상실험 결과 누진다초점렌즈의 부적응을 호소하던 많은 착용자들도 기대이상의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회사 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C3 Galaxy EAGLE

C3 갤럭시 이글은 원/중/근용부의 적절한 대비감도를 최상의 디자인으로 맞추어 그동안 다른 누진다초점렌즈를 사용했던 고객이라도 빠른 적응도를 제공하는 첨단 누진렌즈다. 특히 C3 갤럭시 이글은 원용부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제공, 원용부가 넓어야 하는 직업의 착용자나 난시가 센 착용자들이 수없이 겪었던 울렁임을 최소화한 누진렌즈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미스위스의 한 관계자는 “임상실험에서 갤럭시 이글은 렌즈를 착용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쉽게 적응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와 안경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아이세이버 안경

전문화된 시스템과 진정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금! 아이세이버와 함께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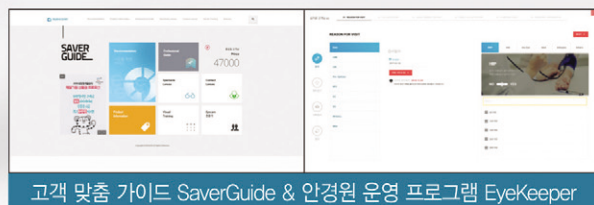


경영지원부터 인적지원까지 성공적인 창업의 시작, **아이세이버**

eyesaver **전국안경전문체인** 가맹개설 문의: 010-6355-3143



특별함으로 완성되는 모던 브리티쉬 인테리어



고객 맞춤 가이드 SaverGuide & 안경원 운영 프로그램 EyeKeeper



① 안경원 맞춤 운영관리 프로그램 EyeKeeper

안경계의 혁신적인 프로그램 아이키퍼, 고객관리부터 매장관리까지

② 고객 맞춤 가이드 프로그램 SaverGuide

스마트한 고객, 아이케어까지 한번에! 안경계의 네이버 세이버가이드

③ 안경원 맞춤형 컨설팅

매월 전문 컨설턴트의 매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으로 매출 UP! UP!

④ 코스별 교육과정

영국 오토메트리 전공 전문강사의 수준 높은 교육,
안경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고객만족도 UP!

⑤ 수익구조개선

다수의 업무 협약 및 자체 브랜드 상품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UP!

⑥ 창업 지원 자금 대출

창업자금 최고 1억 대출 서비스를 연계



eyesaver

| www.eyesaver.co.kr

나도코리아 | www.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서림 방지 클리너 My deskmate(내 짝꿍) 출시!



- ▶ 등산, 낚시, 오토바이 운행 시 최적의 파트너/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가도 김서림 걱정 끝!
- ▶ 200회 가량 사용이 가능하며 성능이 5~6시간 지속됩니다. 단, 클리너를 절대 세척하시면 안됩니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 ▶ 자가검사번호
F-A01B-C005001-A170



나도코리아의 가성비 뛰어난 다양한 제품군

1 보청기/부속/배터리	2 공동발주상품	3 은제품 착한가격 상품판매	4 이중사출 카라
5 KARRA 카라 준금장	6 ATHLLY	7 단니/다뉴브	8 로스터
9 아이올로스	10 7플로	11 버터플라이	12 세븐아이
13 Curren	14 엔프라니	15 아웃도(선글라스)	16 KXR & MXR
17 아이샘(I.Sam)	18 오름인터내셔널	19 캔키드	20 JIA선글라스(6커브)
21 게이트 웨이	22 뿔테(TR)	23 선글라스(스포츠글라스)	24 특수안경

Japanese Design

혁신적인 아사히 ASAHI-LITE® 프리폼 누진렌즈 JAPAN

Revolution Asahi Freeform Progressive lens

LITE (라이트) ★★	ARITA (아리타) ★★★★	PREMIUM (프리미엄) ★★★★★	BEYOND (비욘드) ★★★★★	OFFICE★ (오피스) (중·근용 전용)
사용고객	사용고객	사용고객	사용고객	사용고객
• 넓고, 편안하며 선명한 시야를 원하는 분 • 원, 중, 근용부로 시선이동이 편안한 설계 • 원, 근용부를 넓게, 균형감 있게 설계	• 개인별 특성에 꼭 맞는 최고급 누진을 원하는 고객 • 왜곡 최소, 빠른 적응과 만족도 극대한 최고급 내면 누진 • 개인 착용자의 생리적 습관까지 고려한 부드러운 시야 • 3D 프리폼 가공으로 폭넓고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설계	• 프리미엄 누진설계를 원하는 고객 • 최고급 내면누진 설계, 왜곡 최소, 빠른 적응 만족도 극대 • 3가지 타입 중 선택가능 Asahi Premium(N), (B), (D) • 3D 프리폼 가공으로 폭넓고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설계	• 최고급형 개인맞춤 누진렌즈를 찾는 고객 • 일본의 명품 누진설계를 기반으로 오랜기간 연구하여 동양인 얼굴 구조에 맞게 최적화시킨 최고급형 렌즈 • 3가지 타입 중 선택가능 Asahi Beyond(N), (B), (D) 부드러운 설계	• 사무 환경에 맞게 설계된 최적의 렌즈(중, 근거리 선명한 시야 제공) • 실내 활동 많은 현대인에게 최적, 컴퓨터 독서등 넓고 선명한 중간 및 근용부 제공 • 최대 4m 이내의 실내활동에 적합하며 다양한 명시거리 선택 가능

www.asahi-lite.co.jp

사무 환경에 최적화된 최신 디지털 소프트웨어 설계 혁신적인 아사히 오피스 렌즈



■ Office 1m
■ Office 2m
■ Office 4m



Asahi Freeform 설계

아사히 프리폼렌즈는 주문시 정확한 프레임 정보 및 양·단안, PD를 제공해 주시면 프레임 사이즈에 맞춰 자동 매치, 자동 편심 가공되어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를 최적의 상태로 제공해 드립니다.



1m 용



2m 용



4m 용

Japanese Design
www.asahi-lite.co.jp

LENS

걱정 큰 어린이 시력... 자이스 세미나

‘마이오키즈’ 개발자 saulius 박사 어린이 근시 관리법 특강... 안경사 관심 고조



▲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된 ‘자이스 마이오키즈 프로렌즈’ 관련 세미나.

칼자이스비전코리아(주)대표 최익준)에서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자이스 근시관리 렌즈의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이스 패밀리숍 등의 안경사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자이스 마이오키즈 렌즈 디자인을 개발한 독일 칼자이스비전연구소의 Vamas saulius 박사는 “어린이의 자외선 노출량은 성인보다 평균 75배 높으며, 어린이의 눈에 악영향을 미치는 UV 등 유해광선을 차단하려면 특별한 렌즈 솔루션이 대단히 중요해 개발한 렌즈가 자이스 마이오키즈 프

로렌즈”라며 “마이오키즈 프로렌즈는 누진 디자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절 래그를 줄여 어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안경 렌즈”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우리우스 박사는 어린이 근시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제품 권장법도 소개해 참석 안경사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칼자이스의 관계자는 “자사는 근시관리 솔루션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에게 맑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문의 02)2252-1001

LENS

에실로, ‘100대 혁신기업’에 52위 선정

포브스, 작년 68위서 52위로 상승... 회사측, ‘혁신은 에실로의 영원한 테마’



세계적인 안경렌즈 기업 ESSILOR 그룹이 「Forbes」가 선정한 ‘2018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 5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68위에서 열여섯 단계 성장한 에실로는 2010년 이후 매년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혁신 잠재력을 가진 상위 100대 상장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은 글로벌 기업이다.

에실로 그룹은 설립 이래 핵심 가치를 혁신으로 삼고 ‘시력을 높여 삶을 개선한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현재는 전 세계인의 시각적 요구와 생활 방식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 엔지니어, 물리학자, 사회학자, 소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

히 에실로는 2050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50억 명)이 근시가 예상됨에 따라 이의 해결에 앞장서고, 근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영위와 근시 진행을 늦추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건강과 시력을 관리하는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에실로의 Laurent Vacherot 회장 겸 CEO는 “업계의 선도자로서 혁신은 언제나 에실로 미션과 전략의 초석으로써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시력을 교정하고 보호하는 광학 솔루션의 경계를 넓혀 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 1600-8121

LENS

누진렌즈 판매 도우미 ‘아이원’ 판매 ↑

아이미, 고객에게 3D/AR 안경렌즈의 시뮬레이션 앱 통해 기능성 렌즈 판매 도움

아이미상사대표 김철기에서 올해 2월 출시한 안경렌즈의 새로운 측정장비 아이원이 안경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아이패드를 기반으로 최첨단 블루투스 제어기술이 탑재되어 단 한 번만의 촬영으로 14가지의 정확한 안경의 파라미터 측정이 가능한 아이원은 정확한 인센타가 적용된 누진렌즈의 3D 렌즈 맵핑, 시야 비교 컨설팅 등 다양하고 강력해진 3D/AR 안경렌즈의 시뮬레이션 앱을 통해 기능성 안경렌즈의 판매를 도우면서 안경사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미의 한 관계자는 “여러 번의 사진 촬영이 불가피한 기타 장비 사용 시 고객의 불편함은 물론, 안경사 역시 숙달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단점이 있는데, 아이원은 사진 한 장을 통해 프리폼렌즈를 처방하는데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값을 쉽게 산출해 안경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검안실은 물론 일반 쇼케이스 위에 비치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콤팩트 스타일의 간



편한 디자인이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는 현재 아사히 여벌렌즈와 누진렌즈를 월 50만원 이상 3년간 구매 약정하면 무료로 설치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9662-6898

CLEANER

씨엠에이글로벌, 명품마루 입점

서울역 팝업스토어에 갤러리디엠 등 진열 판매... 상설매장 입점 추진



(주)씨엠에이글로벌(대표 김영선)이 코레일관광개발의 중소기업 명품마루 서울역점에 입점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오픈한 씨엠에이글로벌의 팝업스토어에는 갤러리디엠(Galleri The M) 등 씨엠에이글로벌의 주력제품인 초극세사 안경다이어리 원단에 세계 유명 작가의 명화가 그려진 안경다이어리를 비롯해 아이웨어 케이스, 콘택트렌즈 케이스, 파우치 등을 전시 판매해 평소 명화를 소장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에게 소장용, 판매

용, 선물용 등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회사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갤러리디엠이 우수한 품질과 실용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자사는 팝업스토어에서 인기를 확인한 만큼 추후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상설매장으로 입점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여 명품마루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53)587-6071